

부산시 중구 40계단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¹⁾

최정윤* · 강영조** · 강동진***

*도시미관연구소 · **동아대학교 도시조경학부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The 40 Stairs Cultural-Street Design in Busan City

Choi, Jung-Yoon* · Kang, Young-Jo** · Kang, Dong-Jin***

*Urban Design Institute, **Dong-a Univ., ***Kyung-sung Univ.

ABSTRACT

In study, various notions regarding historic landscapes and rehabilitation were first investigated, and efficient rehabilitation schemes on modern historic landscap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se theological analyses, an underlying scheme on the rehabilitation of modern historic landscapes was drawn up for '40 Stair Cultural Street' in Jung-gu, Busan City.

Rehabilitating historic landscapes not only expresses a positive method to preserving sites and relics of heritage, but also an idea of 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based on interpretation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of value in this present day. Its significance is, therefore, to construct an ideal urban landscape in which the past, present and future can coexist. The rehabilitation of historic landscapes will become a psychological pillar to the people living in cities and will be able to lead the various types of urban activities as effective landmarks creating accessibility and representing perpetuity, as rehabilitated landscapes last through the passage of time.

In addition, since historic and cultural landscape resources significantly represent regional identitie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are protected and maintained, they may result in the succession of time and space in regional and urban historical culture and contribute to improving local images and impressions, allowing citizens and tourists to experience many divers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s.

The underlying scheme on the development of '40 Stair Cultural Street' in the study has been drawn up with a focus on the rehabilitation of modern historic value drawn out of the 40 stairs. The area around the 40 stairs, which was shaped as a stronghold of refugees who fled for safety during the Korean War, has changed as dramatically as people can no longer get a feel of the circumstances of that period. Local

historians and residents, however, still share the joys and sorrows of refugee life as sad memories. Based on the historical fact, landscape planting, street furniture, outdoor color schemes & signage, traffic systems, symbolic 3-D models and pavement designs are underway.

Key Words: Modern Historic Landscape, Conservation, 40 Stairs, Urban Landscape Design

1. 서론

1. 계획 목적 및 범위

본 계획의 목적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의 에환과 향수가 스며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광동 40계단 일대를 당시의 분위기에 맞도록 근대역사경관의 재구성 차원에서 보전(Conservation)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명소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계획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40계단 일대 즉, 국민은행 중앙동 지점부터 40계단 도로, 40계단 위에서 40계단 문화관에 이르는 인쇄골목, 소라계단에서 팔성관광에 이르는 ㄷ자형의 도로(L=500m, B=7~15m)로 한다.

2. 계획 방법

본 계획의 수행과정은 먼저 문헌자료 및 향토 역사가의 인터뷰, 지역주민 인터뷰 등을 기초로 40계단이 가진 공간의 성격을 조사한다. 특히 6·25 전후한 부산의 역사적 중요성 등을 파악하고 40계단이 당시 피난민들의 거점으로 어떠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다.

다음으로는 대상지에 대한 자원, 토지이용, 동선, 환경색채 및 옥외광고물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는 SWOT 분석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경관 재구성 전략을 도출한다. 조사 및 분석단계 거쳐 근대역사경관 재구성 컨셉 설정, 디자인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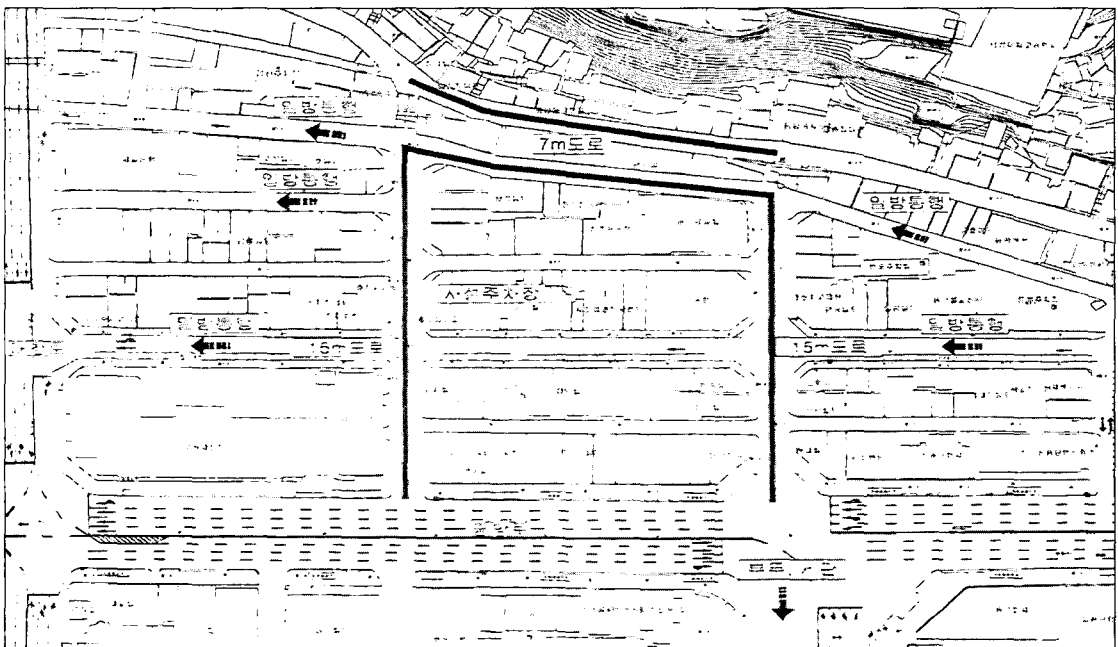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 현황도

이드라인 수립. 디자인 기본구상, 경관디자인 계획, 세부디자인 전개 순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II. 기본구상

1. 40계단의 형성

40계단이 만들어진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1908년쯤으로 짐작하고 있다. 일제 때는 꼬치집들이 많았던 곳으로 이름나 술꾼들이 즐겨 찾아 드는 곳이었고 6·25 전쟁 때는 피난민이 일을 하기 위해 아침, 저녁 오르내리던 고달픈 삶의 계단이었다. 당시 피난민들은 이곳에서 시중에 흘러나온 구호물자를 파는 장터를 벌렸다. 6·25 전쟁 이후에는 암달리상들이 줄지어 있던 곳으로 이름이 낮고, 「40계단 층층대에 기대앉은 나그네……」라는 노랫말로 시작되는 대중가요가 널리 불리게 되면서 더 유명해졌다. “경상도 아가씨”²⁾라는 이 노래를 통해 피난민들은 힘든 일을 마치고 산비탈의 쓰러져 가는 판자 집으로 돌아오는 계단 길에 서서 영도 다리와 북항의 배들을 바라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곤 했다고 한다.

현재 40계단 일대는 부산 시내에서도 근대역사적 정체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부산 인쇄산업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업무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1999년 이후에는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³⁾의 촬영지로도 명성이 나 있다. 40계단을 올라 위쪽으로는 고불고불한 작은 계단들이 가가호호 이어져 있고, 판자집들은 없어졌지만 다가구 주택들과 같은 1970년대 서민주택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일제시대부터 중구는 부산금융의 중심이었으며 국제시장,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핵심이었고, 최근에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영화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구시청사를 중심으로 2009년 완공 예정인 107층 높이의 제 2롯데월드와 부산역, 태종대를 바로 잇는 경전철 영도선 건설 사업이 추진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대하는 40계단 일대 미래의 이미지는 부산근대역사의 체험지, 도심지 문화관광의 거점 연계지, 특화된 인쇄문화거리, 부산시 중구의



그림 2. 1950년대 40계단과 1930년대 부산우체국



그림 3. 현재의 인쇄골목과 40계단

대표적 상징거리라고 할 수 있다.

2. 현황분석

1) 자원

- 40계단: 최초의 40계단은 현재 위치에서 소라계단 측으로 25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었음
- 40계단문화관: 40계단에서 소라계단 측으로 150미터 정도 가면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는 상설문화관 위치
- 소라계단: 1996년 10월 29일 완공된 램프형 계단 (동아제일빌딩 맞은편)
- 동광동 인쇄골목: 40계단 아랫길과 윗길 쪽으로 산재한 인쇄소 거리
- 구 부산 MBC 자리: 1959년 4월 15일 현재의 중앙커피숍 위치에 개국한 최초의 MBC 방송국 위치
- 뷰 포인트: 40계단에서 보는 용두산 공원, 소라계단에서 보는 부산항

2) 현황

대상지 서측 고지대는 노후화 된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 대상지 내에 50년대부터 인쇄업이 성행한 이후 지금까지 부산시내의 대표적인 인쇄거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광고기획실, 출력소, 출판사 등이 성행하고 있다. 중앙로를 중심으로 밀집한 금융업무 지구는

부산 최대 규모이다. 인근에 용두산 공원과 부산타워 등 녹지대가 있다.

대상지는 부산의 관문인 국제여객터미널, 지하철 1호선 중앙동역 및 중심간선인 중앙로(B=40M)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고, 중앙로 주변으로 금융 오피스군 업무 지원 시설이 발달되어 있다. 본 대상지 주변 연결도로는 7~15m 도로로 일방통행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혼잡한 실정이며, 사설주차장이 3개소, 주차면수 약 45면이 산재해 있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일본관광객들의 출입이 많지만 주로 용두산공원과 부산호텔 쪽으로 동선이 형성되고 있다. 주위 연결도로가 7~15m 도로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어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도로 표면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맨홀 등이 산재해 있어 보판 등을 통한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환경색채차원에서는 건물은 비교적 중명도 저채도의 안정된 색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은 고채도의 원색과 불규칙적인 형태 및 부착위치, 과다부착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관훼손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 자체의 크기, 디자인에 있어서 가독성과 판독성을 고려하지 않은 글씨체와 크기는 심각한 상태라고 본다.

3) 종합

본 대상지의 강점으로는 40계단의 높은 인지도, 주변 오피스군들의 업무지원 시설 군집으로 상시 이용자 일정 규모 유지, 인쇄 관련 전문 업종군집, 부산역, 지하철역, 연안여객터미널이 인근에 위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40계단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고, 현재 지칭되는 40계단은 최초의 40계단이 아니라 이전 되면서 변형되었다는 점, 노변 주차로 인해 보행에 극히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점, 인근 광복동 등으로 연결되는 보행동선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회요인으로는 용두산 공원, 광복동 등 주변 명소와 연계가 가능하고 40계단 문화축제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40계단 문화관과 인근에 부산근대역사문화관이 건립되었고, 영화 촬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지도 및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될 여건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위협요인으로는 인쇄골목 주변 건축 시설물

의 노후화, 주변 관광지와 상업공간과의 연계성 부족, 상해거리, PIFF 거리⁴⁾ 등 인근 특화거리와의 활성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법원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상권 쇠퇴로 방문객이 다소 감소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첫째, 교통 및 보행여건을 고려하여 주요 위치에 흡인력 극대화를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 및 가로 시설물 교체, 둘째, 용두산 공원 및 광복로와 연계를 위하여 부산역, 지하철역, 관광센터 등에 광고홍보물 비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 이벤트 개최를 들 수 있다. 셋째, 인근 오피스군 종사자 등 상시 이용자를 겨냥한 전략적 먹거리 개발, 인쇄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40계단과 김종식 화백 골목길을 거쳐 광복동 미화로의 상권을 이어줄 수 있는 루트, 피프거리, 상해거리와의 연계방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개념 설정

근대역사경관 재구성으로써 40계단 문화의 거리 디자인의 컨셉은 “근대역사의 향취(香臭) 만들기”라는 재구성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세부방법론으로 근대 부산의 도시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도시문화관광(urban cultural tourism) 개념을 도입한다. 실행수단은 추억이 담긴 문화적 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다양한 문화적 경관을 발굴하고 확보하여 많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하기, 흥미로운 도시문화활동 재생 및 강화하기로 설정한다.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40계단을 중심으로 50~60년대의 흔적을 재구성함으로써 40계단이 거시적으로는 근대화 교육의 장으로, 도시문화 관광명소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시적으로는 휴식 기능과 이벤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이나 인근 오피스군 종사자들의 기능성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4. 기본구상

1)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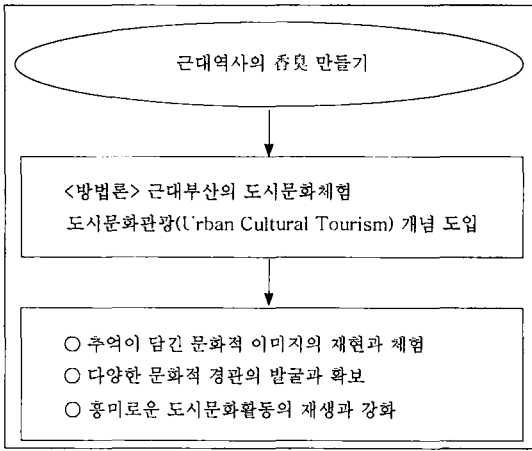


그림 4. 디자인 개념 추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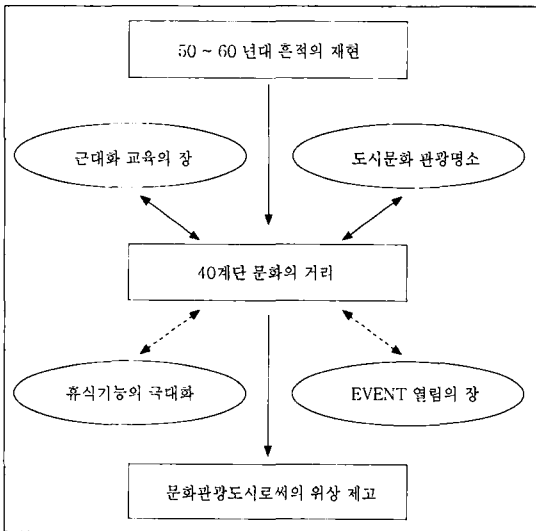


그림 5. 디자인 가이드라인

대상지가 ㄷ자형의 선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중점에서의 접근 단계에 따라 공간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3단계로 구상하였다. 1단계는 추억이 담긴 문화적 이미지를 재현하여 체험하는 단계로 걷고, 과거를 느끼고, 추억을 생각하는 시나리오로 구성한다.

세부적으로 도시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근대역사문화관과 40계단을 골목길로 연계하여 걸어가면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로장치물을 통해 환경해설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근대역사문화가 자연스럽게 체득되도록 한다. 주변의 계단길 음식골목 등 역사적 이미지 재현장소를 설정하고 유형별 이미지화 요소를 추

출하고자 한다.

2단계는 다양한 문화적 경관을 확보하고 발굴하는 단계로 휴식하고, 바라보고, 부산의 지역성을 느끼는 시나리오로 구성한다.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경관을 발굴하고, 소라계단에서 보는 부산항, 40계단 위 인쇄골목에서 보는 용두산 등 아름다운 경관 프레임이 형성되는 곳을 발굴하여 조망점을 설정한다. 3단계는 도시문화활동의 재생과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적 이미지를 느끼고, 즐기고, 참여하는 시나리오로 구성한다. 주중, 주말 이벤트를 개발하고, 인쇄거리축제, 문화제, 음악제 등 특화 이벤트, 먹거리를 개발하고 40~60년대의 향수산업을 개발 육성한다.

2) 경관구상

기본디자인 방향은 첫째, 40계단 일대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디자인 모티브로 부산의 과거와 현재의 이미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세부디자인을 전개한다. 둘째, 소라계단에서는 바다를 관망할 수 있는 뷰 포인트 영역이 설정되므로 아웃 뷰를 중시하고 40계단은 중앙로에서 보이는 인 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소라계단 측은 열린경관 프레임을 40계단 측은 닫힌 경관 프레임을 수용함으로써 개폐의 조형미를 부각한다. 넷째, 대상지 교차로 형성부는 소라계단 광장, 40계단 광장, 건널목 광장, 선착장 광장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머무는 공간, 이벤트 생성 공간으로써 기능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다섯째, 전체적 이미지는 통일하되 바닷길, 기차길과 같은 각 축의 개념에 맞도록 가로시설물 및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도한다.

III. 기본계획

1. 기본계획의 틀

1) 디자인 축의 설정

그림 2의 A축은 40계단과 소라계단을 축으로 1950년대의 시대적 이미지들을 재현하는 공간으로 과거의

표 1. 디자인 기본구상

구상	이미지 전개	내용
○ 추억이 담긴 문화적 이미지의 재현과 체험	걷는다 → 과거를 느낀다 → 추억을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문화 관광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역사문화관과 40계단 보행연계 - 골목길로 연계(보행체험) ○ 근대역사문화의 체험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해설프로그램 도입 (가로장치물화: 바다, 풀, 벽면형) - 40계단 문화관 공간 적극 활용 ○ 역사적 이미지 장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이미지 재현장소 설정 (주변부, 음식골목, 계단길 포함) - 유형별 특성 및 이미지화 요소 추출 (가로형, 광장형, 지구형/ 점,선,면형)
○ 다양한 문화적 경관의 확보와 발굴하기	휴식한다 → 바라본다 → 부산을 느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경관 발굴 ○ 부산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경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뷰 포인트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라계단에서 내려다보는 부산항 :40계단 위 인쇄골목에서 보는 용두산 ○ 미래를 위한 좋은 경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계단 문화관에서 바라보는 부산항
○ 도시문화 활동의 재생과 강화하기	문화적 이미지를 느낀다 → 즐긴다 →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이벤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정오의 음악회), 주말(돛대기시장) ○ 특화이벤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거리 축제, 문학제, 음악회 ○ 임시이벤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촬영장 등 ○ 먹거리 개발 ○ 40~60년대의 향수산업 개발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전시장, 기타 상업시설

축이라고 할 수 있고, A' 축은 오피스군 밀집지역으로 현재의 공간을 과거의 공간으로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B, B' 축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물류수송의 거점이 되었던 부산항과 초량역을 테마로 도입하였다. B축은 인 뷰의 특성을 살려 내륙지향적인 기차길의 이미지를 도입, "40계단 기차길"이라 명명하고 이에 관련된 디자인 모티브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다. B' 축은 소라계단에서 부산항 축을 바라보는 아웃 뷰의 특성을 살려 "40계단 바닷길"로 명명하고 부두와 관련된 모티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한다. 특히 기차길의 세부 디자인 모티브는 "이별의 부산정거장"으로, 바닷길의 모티브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대중가요의 이미지와 요소를 도입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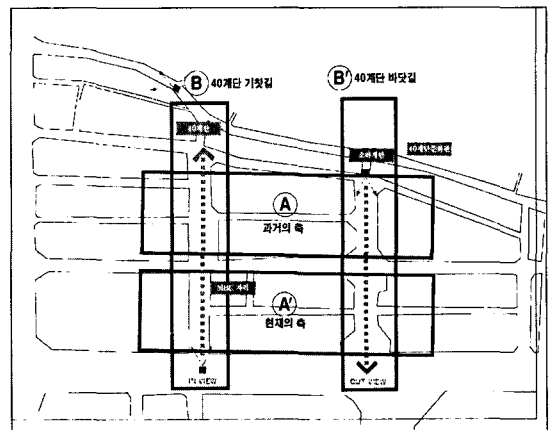


그림 6. 공간구조도

40계단 기차길 축의 40계단 하부를 중심으로 "40계단 광장"을 조성하고, 구 MBC 자리에 40계단 기차길의

2) 핵심 디자인 대상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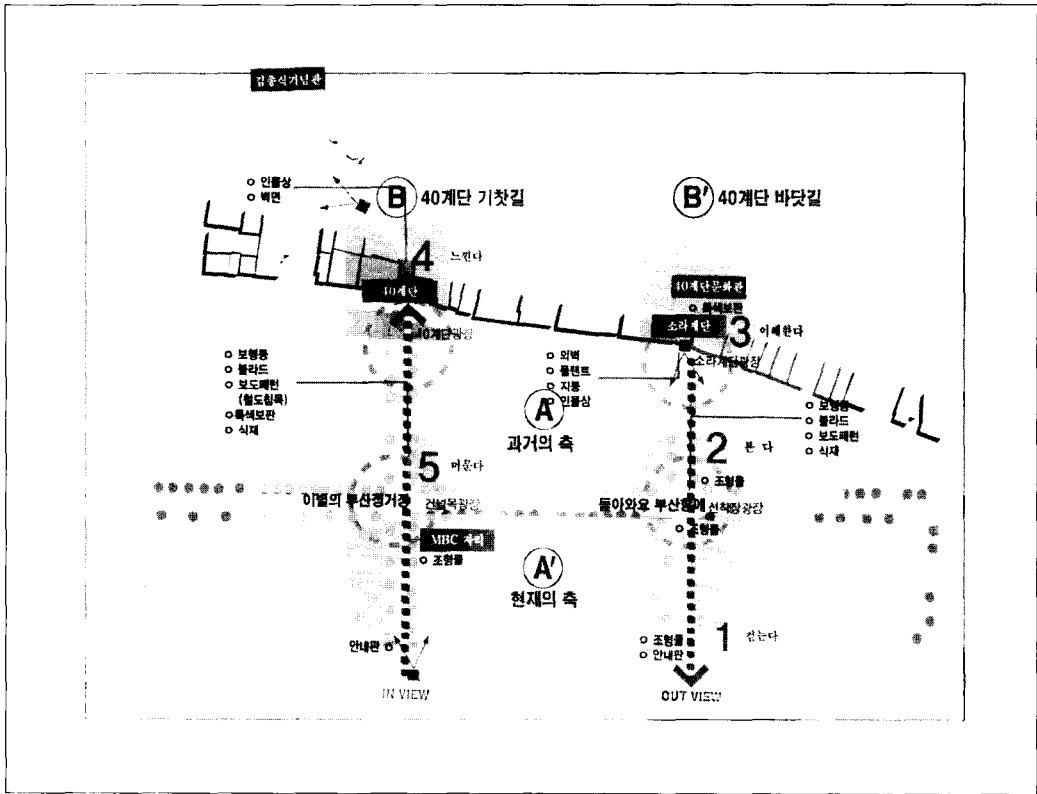


그림 7. 세부디자인 구상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건널목 광장”을 조성한다. 40계단 바닷길의 개념이 도입되는 소라계단 하부를 “소라계단 광장”, 40계단 바닷길 중간은 “선착장 광장”으로 조성한다(그림 2 참조).

2. 부문계획

1) 보행동선계획

보행동선은 크게 방문객(관광객) 보행동선과 상시 이용객의 보행동선으로 구분하였다. 관광객 보행동선은 걷는다 → 본다 → 이해한다(40계단 문화관) → 느낀다(40계단) → 머문다에 이르는 다섯단계의 체험과정으로 구분한다. 주 진입동선은 부산역과 인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이 근접한 소라계단 쪽으로 계획하고, 순환동선을 체험과정에 따라 설정한다. 보조동선은 대상지 주진입동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횡축)로 설정하였다. 상시 이용객의 보행동선은 오피스군 종사자들과

인쇄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주 동선구간 외의 보행거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도입하여 미니광장으로 활용하고, 보행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휴식시설의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다. 표 2의 보행동선계획은 동선의 전개과정별 행태와 각 거점, 시간, 디자인 모티브와 디자인 대상, 이벤트 계획을 나열한 것이다.

2) 차량동선계획

중앙로에서 소라계단 및 40계단, 대청로 방향의 일방통행 체계를 유지하되 40계단 기찻길은 중앙로 방향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보행동선과 동일한 방향으로 차량교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행동선과 시각, 기능적인 혼란을 피하도록 하였다. 동일 레벨선상에서 보차혼용을 원칙으로 4m 차도 양쪽으로 8m, 3m 인도를 두어 보행자의 휴게기능을 극대화하고 8m 보도는 머뭇, 휴식, 관찰, 참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3m 보도는 통과, 인식, 거넘 등의 기능으로 유도한다. 또 Event,

표 2. 보행동선계획

전개	공간	시간	Motive	디자인 대상	이벤트	연간 이벤트	거점	
① 걷는다	40계단 바닷길	현재	〈선착장〉 돌아와요 부산항에	조형물 보도패턴 보행 등 블라드	정오의 음악회	40 계 단 문화축제	선착장 광장	
		과거						
② 본다	소라계단	현재	-	조형물 옹벽	상설 이벤트		인쇄골목 축제	소라계단 광장
③ 이해한다	40계단 문화관	과거	-	보행 등 특색보판	돛대기 시장 (야시장)			-
④ 생각한다	40계단	현재	50년대 (물동이 인 여인)	조형물 벽면 보행 등 핸드레일				문학제 가요제
⑤ 머문다	40계단 기차길		〈기차길· 기차역〉 이별의 부산 정거장	철도길 벤치 보행 등 MBC기념물 신호대	간널목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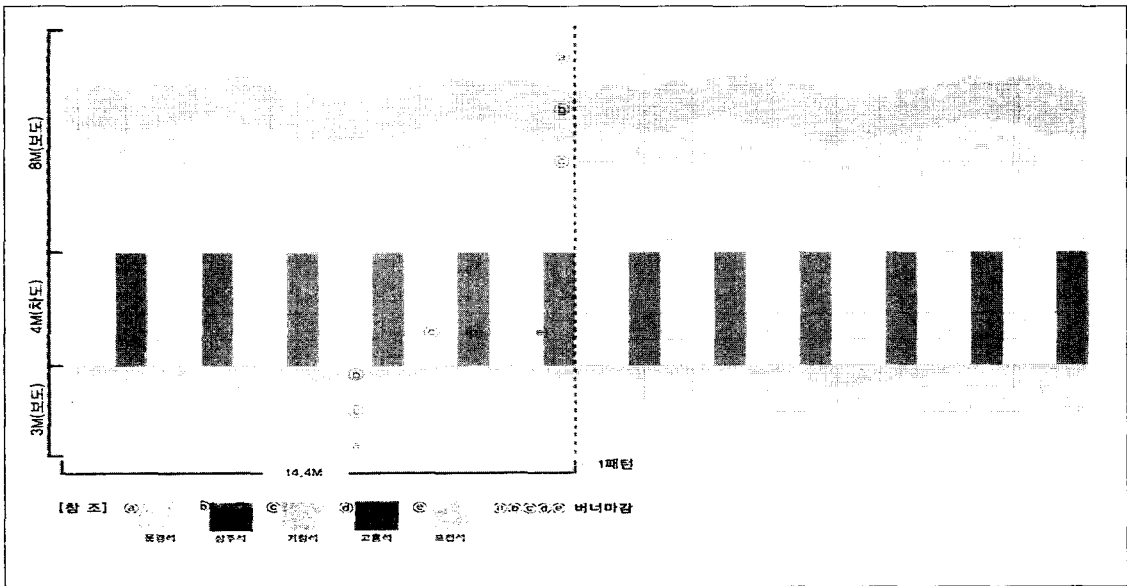


그림 8. 기본 패턴 포장

축제 시에는 과거의 축 공간에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지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색은 초기 인상을 형성하는 요소이며 인간의 감정과 생리적 상태를 좌우한다. 대상지 일대 환경색채는 중명도, 저채도의 안정된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향후에도 기본색 명도 6, 채도 3 내외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3) 환경색채 및 옥외광고물계획

할 것이다.

간판은 시민들이 항상 접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광고나 표시판의 기능 외에 도시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정서적, 시각적 요소로서 기능하며 그 도시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권장색상, 건물의 규모에 따른 크기, 형태, 부착위치, 개수, 서체 등에 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간판의 수는 최소화하면서 판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남시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는 사인의 체도를 6 이하로 지정하고, 돌출사인의 크기를 가로, 세로 50c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둘째, 전체 간판의 심미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고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간판은 공공의 차원에서 디자인되고 부착되어야 하는 가로시설물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장소성을 극대화하고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50~60년대 풍의 간판디자인으로 유도함으로써 근대역사경관의 재구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함과 동시에 향수적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식재계획

우리 전통수종 이팝나무(쌀밥나무)⁵⁾를 주식재 수종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지 연결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플라타너스 등은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본 디자인 의도와 상충하지 않으므로 보존한다. 병렬어긋나기 식재를 채택 보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입부 우측 및 40계단 광장에는 대형 은행나무를 포인트 식재한다. 40계단 광장 등은 이벤트 및 행사시 공간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동형 화분을 설치하여 분기별로 초화류를 교체 식재하도록 한다.

5) 포장계획

기본패턴은 40계단의 판자집과 파도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항구의 이미지와 근대화의 격동을 표현한다. 견고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을 사용, 석재 고유의 색상을 표현한다. 차도는 인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거창석, 고흥석 등 재질 고유색의 명도 대비를 이용한다. 기차길은 철도레일 및 철도침목을 바다길은 목재데크를 적극 활용한다. 선착장 광장과 건물 꼭광장은 흑두기 돌박음 포장으로 차량속도를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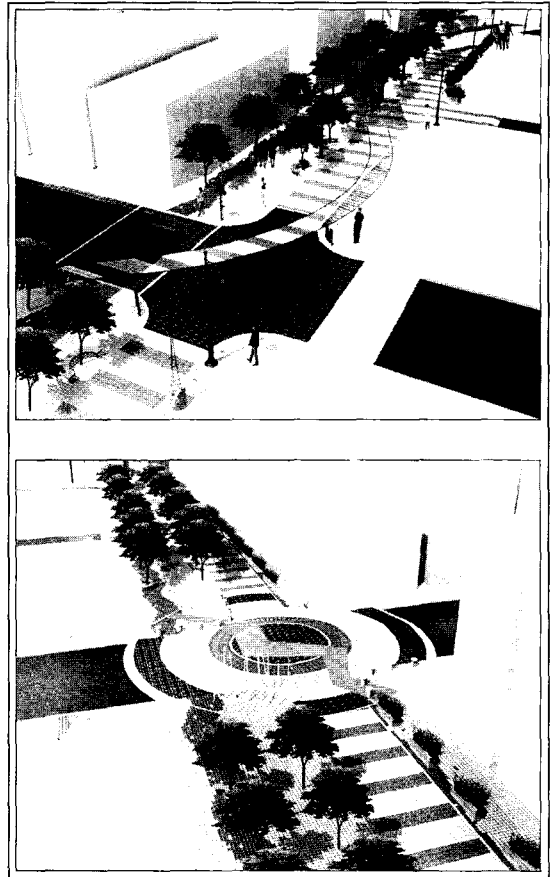


그림 9. 건물목 광장 선착장 광장의 포장

스럽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6) 환경장치물계획

40계단 바다길 진입부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특화거리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선착장 광장에는 돛과 닻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조형작품을 계획하고, 각 광장에 그 시대의 이미지를 구상화한 조각품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차원에서 지나간 근대역사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가로등은 바다길과 기차길은 양철가로등으로, 인쇄골목은 가스등 가로등으로 한다. 블라드는 기차길에는 철도레일을 모티브로 하고, 바다길은 닻줄걸이형 블라드로 한다. 그 외 이동식 화분으로 활용될 물동이형 포트는 당시의 양철물동이를 모티브로 한다. 소리계단 벽면은 실리콘 페인트로 재도장을 하되 나선형의 특성을 살려 계단 외부 벽면에

표 3. 디자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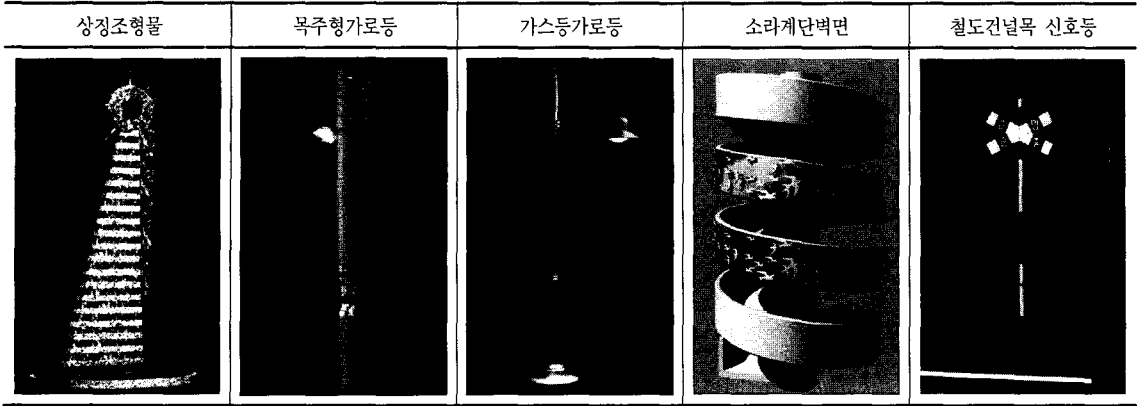


표 4. 이벤트 프로그램 구성

주제	Target	개최시기	장소	내용
작은 음악회	인근주민 (직장인)	평상시	소라계단 광 장	○ 점심, 퇴근시간을 이용한 간이음악회 ○ 깜짝이벤트 병행 ○ 상설무대 공간 활용 ※ 여의도 광장, 대구 월드컵 경기장
돛테기 시장	부산시민 관 광 객	주1회	소라계단 ~ 40계단 광 장	○ 야시장 형태로 운영 ○ 물물교환 ○ 향후 특정품목으로 특화방안 강구 ○ 상설야시장화
인쇄골목축제	〃	연1회	40계단 기차길 + 바닷길	○ 인쇄골목 활성화를 위한 특별축제 ○ 인쇄기기 전람회 등 병행 ○ 문화제 병행
40계단 문화제	〃	4~6월	40계단 기차길 + 바닷길	○ 40계단의 애환과 향수를 느끼는 축제 ○ 40계단 가요무대 ○ 6.25 음식 마자회 ※ 쌀밥나무 개화시점에 맞추어 상징성 부각

부조작품을 부착한다. 부조디자인 모티브는 바닷길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선박의 마스터에 갈매기 떼가 모여든 형상의 동주물로 제작하여 분체소부도장 한다. 건널목 광장에는 철도건널목 신호등을 설치하여 철도길의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한다.

7) 이벤트 프로그램 계획

장소성에 중점을 둔 이벤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조성된 40계단 문화의 거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은 시공과정에서 상당 부분 변경이 발생, 당초 의도를 충분히 표현해 내지 못하였다고 본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기본설계를 통해 채택된 당초 설계안이 그대로 실시설계에 반영,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자와 디자인

전문가를 제작 및 시공감리에 참여시켜 계획시 의도한 사항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 제작시공 공정마다 디자인감리가 관여하여 최선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디자인의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행정기관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옥외광고물,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홍보의 문제이다. 물리적 장소가 형성되면 비물리적 요건들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벤트나 교육, 체험 등 기본 계획 시 의도된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이벤트 개발, 광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기대 효과

본 계획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대상지인 40계단 일대를 6·25를 전후한 근대 부산의 도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성이 극대화되는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부산경제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한 중구의 근대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둘째, 6·25 전후 근대역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흥미를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부산근대역사관, 40계단문화관의 기능적 역할을 보조함과 동시에 근대역사체험공간으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근대역사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로는 근·현대사에서 무역, 경제, 물류, 정치의 주요 거점이었던 중구의 역사성을 인식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확산하고 도시발전의 정신적 모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축제 활성화, 근대역사경관 확보를 통한 관광객 및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극대화로 문화, 예술, 산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인



그림 10. 준공된 40계단 광장과 소리계단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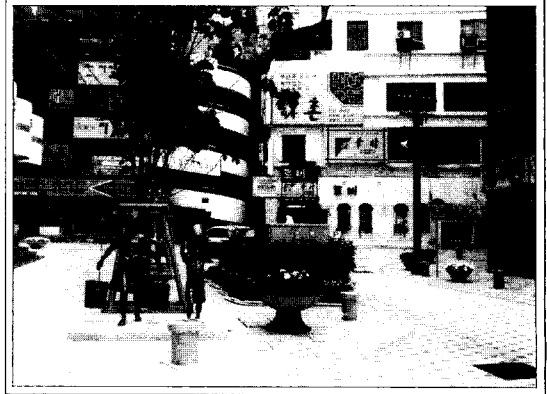


그림 11. 준공된 건널목 광장 및 소리계단 광장

근오피스군 종사자들의 휴식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 예술, 상권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주 1. 본 논문은 2002년 10월 『부산광역시 중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설계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2003년 6월 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혜결과물과 2004년 4월 공사 준공 결과를 근거로 연구되었음.
- 주 2. <1절> 사십계단 층층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쑼 해다오/피난살이 처량스레 동정하는 판잣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로워 묻는구나/그래도 대답 없이 슬피우는 이북고향/언제 가려나. <2절>고향길이 틀 때까지 국제시장 거리에/담배장수 하더라도 살아보세요/정이 들면 부산항도 내가 사는 정든 산천/경상도 아가씨가 두 손목을 잡는구나/그래도 눈물만이 흘러 젖는 이북고향/언제 가려나. - 1953년 발표된 대중가요 "경상도 아가씨", 손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 한복남 노래 -
- 주 3. 1999년 7월 개봉한 이명세 감독의 드라마로 1999년 청룡 영화제 최우수 한국영화로 선정된 액션장르 영화. 안성기,

박중훈, 장동근 등이 주연했다. 영화의 줄거리는 40계단과 직접 관련 없음.

- 주 4. PIFF(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거리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거리
- 주 5. 생장형은 불규칙형이며 원정형 수형으로 수고 15~20m 정도의 낙엽활엽교목이다. 원산지가 한국이며 양지바른 곳에서 생육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4~6월에 화려한 흰색꽃을 피우고 넓은 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악센트 식재, 녹음식재, 가로수 식재로 이용할 수 있다.

인용문헌

1. 부산직할시 중구(1990) 중구지. 부산직할시 중구청.
2. 매일경제, 2004년 3월 23일자.
3. 일본건축학회(배현미 역)(2000) 인간심리행태와 환경디자인. 서울:보문당.
4. 산업자원부(2003) 도시환경디자인개선사업(도시환경디자인표준화연구). 서울: 한국디자인진흥원.

원 고 접 수: 2005년 1월 18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5년 3월 17일

한국조경학회지 조경작품 평가기준 제4조에 의거하여 심사필